

지역사회 소외계층 향한 봉사 손길... “배려를 배웁니다”

백석대학교

‘백석 콤 캠프’, 김장 나누기 등 학생들에게 각종 봉사 기회 마련

‘이웃과 함께한 40년.’ 대학 구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학령 인구가 줄어 전국 대학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을 지표로 삼고 있는 대학이 있다. 장중현 목사가 1976년 세운 대한복음신학교, 대한복음선교회를 뿌리로 올해 건학 40년을 맞는 백석대(총장 최갑중)다.

백석대는 평소 학생들에게 각종 봉사활동을 기회를 제공하고 장려해 인성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명절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별이 따가워질 때면 농촌 어르신들을 찾아가 의료봉사를 펼친다.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전국의 여러 시설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초청해 캠프를 열고, 친바람이 불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집에 연탄을 나르고, 직접 담근 김치를 전한다.

“내가 받은 사랑, 다시 전해요”
 “어린 시절 ‘콤 캠프’에서 누군가의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었어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인성개발원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청소년을 초청해 여는 ‘백석 콤 캠프’에 중학생 시절 참여했던 김영석 씨(23)의 말이다. 김 씨는 이후 백석대에 입학했고, 올 1월 자원 봉사자로 캠프에 참여했다. 그는 “내가 사랑의 감정을 알려준 당시 캠프 선생님들처럼 저도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며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콤 캠프’는 설립자 장 목사가 총장 재임 시절 시작해 올 여름이면 20주년, 훗시로는 제40회



지난해 ‘백석대 김장나눔 대축제’에 참여한 백석대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할 김치를 담그고 있다. (왼쪽 사진) 오른쪽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에 나선 백석대 학생들. 백석대 제공

를 맞는다. 준비부터 철저히 하다. 캠프가 열리기 전 재학생들은 15주간 ‘백석인성교육론’을 들으며 훈련을 받고, 합숙 캠프를 거친 뒤야 전국에서 모인 아동과 청소년을 만날 수 있다. 캠프 자원 봉사를 마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증한 ‘인성개발지도사 자격증’을 받는 것은 덤이다.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대학
 백석대는 사회봉사센터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5월

이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연다. 보건학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와 스포츠과학부 학생 등이 참여한다.

김장철에는 총장 교직원 학생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한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과 조손 가정 등을 돕는데 지난해에는 다문화가정도 포함됐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며느리들을 초청해 김치 담그는 법을 전수했고, 김치 6000kg을 충남 천안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했다.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의 ‘지역사회 장애 학생과 함께하는 템바십트레이닝(MT)’은 11년째

열리고 있다. 15일 열린 MT에서 강유석 교수는 “대학 생활 시작부터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서 전공 지식도 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주변 마을의 포도농장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건학 40년에 새겨진 감사’
 백석대가 학생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제안하는 것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을 배우면 학업 뿐 아니라 미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백석대는 1992년 지금의 천안 캠퍼스 자리인 천안 안서동에 자리를 잡았다. 1996년 기독교에서 천안대로, 2006년 다시 지금의 백석대로 교명을 바꿨다.

올해 현재 12개 학부, 49개 전공, 대학원(서울) 7개에 학생 약 2만 명이 재학 중이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라는 슬로건을 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조종엽 기자 joo@donga.com



창동염광교회 1층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들. 발달장애를 겪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일을 맡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일하고 있다. 창동염광교회 제공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의료 봉사단 등 이웃 섬김 활동

창동염광교회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위치한 창동염광교회(담임목사 황성은)는 어린 양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나눔과 섬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교회를 찾아가면 1층에 ‘피어라희망 카페 베이커리’가 눈에 띈다. 이곳에서 일하는 4, 5명의 바리스타들은 모두 발달장애인. 벽에 걸린 ‘느려도 함께, 함께 희망을’이란 글귀처럼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카페다. 장애인 바리스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이들은 오전 오후조로 나눠 매일 4시간 안팎으로 일한다.

교회는 ‘피어라희망협동조합’을 통해 ‘피어라희망 카페·베이커리’와 ‘피어라희망 농장·가게’를 운영하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여기서 20명이 일을 하며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고 있다.

이 협동조합은 2008년 교회가 설립한 ‘피어라희망센터’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센터는 20명의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재활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180여 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아자 장애인문화센터’도 갖추고 있다. 센터의 복지선교 사역은 장애인복지기관이 부족한 도봉구 지역 장애인에게 단비가 되고 있다. 또 교회는 사회봉사부를 중심으로

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다. ‘목요 사랑의식탁’은 매주 목요일 교회를 찾는 500여 명의 홀몸노인과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와 수저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염광 호스피스 봉사단’은 40여 명의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매주 상계백병원 암병동, 시립동부병원의 호스피스 병동, 가정 호스피스의 환자들을 찾아 돌보고 있다. ‘집수리 봉사단’은 30여 명의 건축, 도배, 집수리 전문가들이 매일 주민센터나 구청이 소개하는 가정을 찾아가 집을 고쳐준다. ‘의료 봉사단’은 홀몸노인의 가정을 월 1회 방문해 과일과 비타민을 전하는 사랑의 비타민 사업과 외국인노동자 진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과 나눔 축제

2005년 제1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년 제2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

주최 2016. 10. 15 ~ 20 | 시청광장, 사랑의교회

가정/여성 디아코니아 세미나

소외계층 디아코니아 세미나

장애인 디아코니아 세미나

아동/청소년 디아코니아 세미나

지역사회 개발 디아코니아 세미나

개막식 폐막식

국제 디아코니아 컨퍼런스

노인 디아코니아 세미나

보건 의료 디아코니아 세미나

디아코니아 주제 컨퍼런스

디아코노스 다음세대 경기 대회 CCM페스티벌

디아코니아사역 전시 섬김과 나눔의 사례 소개 100여개의 관련기관 부스 설치 서울광장

자원봉사 컨퍼런스

다문화 디아코니아 세미나

디아코니아 음악회

디아코니아 지역대회 인천, 대전, 강원, 영남, 호남 6월~9월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엑스포) 조직위원회
 한국교회봉사단 사무국 Tel : 02-747-1225
 www.koreandiakonia.org